

[제2020-27호]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보 도 자 료		사람이 있는 문화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5쪽
배포일시	2020.8.25(화)	담당부서	LA한국문화원 공연
연락처	323-936-3015/ hannah@kccla.org	담당자	Hannah Cho

**Skirball Cultural Center 'SKIRBALL STAGE' 온라인 유튜브 공연
전통 국악 그룹 '악단광칠' '흥'을 몰고 LA에 왔다.**



SKIRBALL STAGES
Enjoy Korean Music & Food

Premiering on YouTube Live
Saturday, August 29
8:00 pm(PDT)

Free Online Concert
RSVP @ Skirball.org/skirball-stage

Skirball Cultural Center

- ▶ 공연명 : 2020 Skirball Cultural Center, Skirball Stage with ADG7(악단광칠)
유튜브 스트리밍 공연
- ▶ 일자 : 2020년 8월 29일 (토) 8pm
- ▶ 온라인 사이트 : Skirball Cultural Center 유튜브 계정
- ▶ 주최 : Skirball Cultural Center
- ▶ 후원 : LA한국문화원
- ▶ 공연문의 : LA한국문화원 323-936-3015 공연담당 Hannah Cho

LA한국문화원(원장 박위진)은 미주 최대 규모의 유태인 문화센터인 Skirball Cultural Center와 함께 8월29일(토) 저녁8시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user/SkirballCulturalCtr>)을 통해 *Skirball Stage* ‘악단광칠’ 온라인 스트리밍 공연을 개최한다.

Skirball Cultural Center는 매년 여름 개최하는 ‘Sunset Concert 2020’에 악단광칠을 초청, 라이브 공연으로 사전 기획하였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 계획된 모든 공연 일정이 취소됨에 따라, ‘Skirball Stage’라는 특별 온라인 공연 프로그램으로 미 현지 관객들에게 찾아갈 예정이다. 그 첫번째 에피소드 공연으로 ‘Skirball Stages: Gavin Turek and Ak Dan Gwang Chil Virtual Concert’ 공연(총 60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공연 세부 정보 및 사전 예약 링크 참조

<https://www.skirball.org/programs/virtual-concert/skirball-stages-gavin-turek-and-adg7>

LA한국문화원은 이번 공연을 위해 프로모션 파트너로서 Skirball Cultural Center와 미 현지인들에게 한국의 우수 공연을 널리 알리고, 또한 한인 커뮤니티에도 미 현지의 주요 문화 예술기관과의 타 커뮤니티 교류 공연 개최 소식을 알리고자 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LA문화원은 이번 공연 영상 제작을 위해 악단광칠의 사전 인터뷰 영상(약1시간 분량)을 영어로 번역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전체 공연 영상에 필요한 부분들을 편집하여 제작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악단광칠(樂團光七)은 2015년 정가악회에서 음악 유닛으로 결성하며, 그 해가 광복 70주년이어서 광칠이란 이름을 붙였다. ‘악단광칠’은 9명의 아티스트로 구성, 대금 연주자에서 소리꾼으로 거듭난 ‘방초롱’, 판소리를 전공한 ‘안민영’ 그리고 경기민요를 전공한 ‘왕희림’의 젊은 여성 3인 소리꾼이 극과 음악으로 어우러진 무대를 이끌어나간다. 대금 연주자 김현수는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전통악기 대금 연주자로 그룹 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타악의 전현준과 선우진영 그리고 아쟁의 박혜림과 피리, 생황 연주자 이향희와 가야금 연주자 원면동 마루로 구성된 국악 그룹이다.

‘악단광칠’은 고풍 민요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곡을 만들고 연주한다. 대중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황해도 지방의 서도민요의 발굴과 재창작에 큰 관심을 갖고, 강렬한 서도음악의 파격적 재해석으로 무대에서 관객들을 미치고 팔짝 뛰게 만드는 ‘악단광칠’만의 독특한 음악과 무대 퍼포먼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악단광칠’은 2017년 평창동계올림픽 G-100일 페스티벌 초청 공연을 펼쳤으며, 2017년 전주세계소리축제에 참가하여 수림 문화상을 수상하였다. 2018년 KBS국악대상 단체상과 대한민국문화예술상을 수상한 경력도 있다. 2017년 벨기에 월드뮤직 축제 포클로리시모(Folklorissimo)와 2018년 체코 거리예술축제 컬러스 오브 오스트라바(Colours of Ostrava)에 이어 2019년 서울 뮤직위크 쇼케이스와 2019 WOMEX(World Music Expo) 공식 쇼케이스에 선정되며,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그룹이다.

특히, 악단광칠은 2020년 1월 미국 뉴욕의 글로벌 페스트(globalFEST 2020)에 초청받아 그들만의 독특한 무대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뉴욕타임즈와 NPR 라디오 공영 방송 프로듀서의 관심을 한몸에 받은바 있다.

미국 공영 라디오방송 NPR의 간판 음악 프로그램 ‘타이니 데스크 콘서트(Tiny Desk Concert)’의 메인 프로듀서인 밥 보일렌(Bob Boilen, NPR)이 ‘globalFEST 2020’에서 one of top discoveries로 악단광칠을 꼽으며 다음과 같이 전했다.

“This is one of the most entertaining things I’ve seen in a long long time...I’ve spent entire time trying to figure out how to fit this huge band behind my little (tiny) desk”
(Bob Boilen, NPR)

"이것은 내가 참으로 오랜만에 본 가장 재미있는 공연 중 하나이다.... 나는 내 작은 책상뒤에(Tiny Desk Concert)에 이 거대한 밴드를 어떻게 적절히 세울수있을 것인지 알아내고 애쓰는데 시간을 보냈다."(Bob Boilen, NPR)

***NPR 기사 참조**

Our Top Discoveries From globalFEST 2020

All Songs Considered

January 14, 2020

https://www.npr.org/2020/01/13/795905443/our-top-discoveries-from-globalfest-2020?fbclid=IwAR0HZjMOVGdM1ZEXKA5_ZfHbLy6r3uRJxdfYRdJKJp_WB10cUUbDRtBluEY

***The New York Times 기사 참조**

At Globalfest, Rowdy Sounds From Around the World

Jan. 13, 2020

<https://www.nytimes.com/2020/01/13/arts/music/globalfest.html?auth=login-email&login=email&fbclid=IwAR2BcqQsMSYbxVtCaKmxQVukdXhkpKXEwWU4teUPCNbhZiaak9mzzqACJQ>

공연 영상은 현지에서도 좋아할만한 하이라이트 작품들인 <영정거리>, <난봉가>, <맛이를 가요>, <어차> 순서로 진행되며, 악단광칠의 음악 세계에 대한 인터뷰 영상을 함께 구성하여, 영어 자막과 함께 제공된다. 공연 관람 등 상세내용은 LA문화원 홈페이지 (<http://www.kccla.org/>) 또는 스커볼센터 홈페이지 (<https://www.skirball.org/>)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공연 관람은 무료이며 사전 예약(RSVP)을 통해 공연 관련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특별 온라인 공연을 위해 Skirball Cultural Center는 ‘Skirball Suppers’ 스페셜 디너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다. 기존의 선셋 콘서트는 야외무대에서 저녁만찬을 함께 즐기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 온 만큼 이번 공연 프로그램에서도 3코스 메뉴를 1인당 \$42에 제공하고 있으며, 사전 예약제를 통해 공연 당일(8월29일) 오후 5:30-7:45 사이에 픽업 할수 있도록 사이트는 제공하고 있다.

이번 음식 주제는 한식에서 영감을 받은 코스 메뉴로 구성하였다. 스커볼센터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공연팀인 악단광칠(ADG7)의 본고장인 한국의 요리와 재료에서 영감을 얻어, 스커볼 센터 측의 메인 셰프(Skirball’s Executive Chef)인 션 셰리단(Sean Sheridan)이 특별 메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스커볼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공연을 관람하는 동안 한식이 포함된 코스 메뉴를 제공함에 따라 한국 문화와 함께 한국 음식도 즐길 수 있도록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3코스 메뉴로 제공 되는 이번 한식 프로그램은 Skirball Cultural Center에서도 처음으로 제공하는 메뉴로, 이용자들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다”고 전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즐기길 바란다.”라고 답했다.

***코스메뉴 주문 관련 세부 내용 링크 참조**

<https://www.skirball.org/programs/food/skirball-suppers>

*공연 프로그램 소개

1) 영정거리(Youngjeonggeori)

황해도 곳의 '영정거리'를 새롭게 재해석한 곡이다. 원곡을 들었을 때, 여러 무녀의 갖가지 음색이 뒤섞인 목소리가 몽환적이면서도 강렬하게 느껴졌다. 옛 노래임에도 현대적인 사운드가 인상 깊었다. 원곡의 느낌을 최대한 살리면서 악단광칠의 소리를 담고자 했다.

2) 난봉가(Nanbongga)

누군가는 사랑이 열정이 가득 넘치기를, 또 누군가는 뜨겁기를 바란다. 하지만 사랑이 항상 낭만적이지만은 않은 것은 뜨겁고 열정적인 사랑에 대한 바람 또한 크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 힘든 사랑을 기꺼이 선택하기도 한다. 그 선택은 때로는 힘들지만 사랑을 점차 온전하게 만든다. 힘든 사랑에 대한 믿음과 아름다움을 서도민요 '난봉가'에 담았다.

3) 맞이를 가요(Hello, Lonely)

요즘 도시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혼자사는것에 많이 익숙해져있다. 혼자서 책을 보고, 혼자서 영상을 보고, 혼자 밥 먹는것에 익숙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허전함이나 외로움에 대한 위로를 전하기 위해 만든곳이다.

4) 어차(Aucha)

서해안 배연신 곳에 있는 뱃노래를 모티브로 했다. 악단광칠의 음악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이 만선의 기쁨처럼 행복과 흥이 가득 차기를 바란다.

*악단광칠(ADG7) 아티스트 소개

가야금 원면동마루(원면동마루), 아쟁 박혜림(그레이스 박), 대금 김현수(김약대)
피리&생황 이향희(이만월), 타악 전현준(전궁달), 선우진영(선우바라바라바라밤)
노래 방초롱(홍옥), 안민영(명월), 왕희림(월선)